

한미동맹 60년… 美대사관 브렌트 바이어스 공보참사관 인터뷰

“광주와 더 돈독해지도록 노력”

5·18 열린 마음으로 이해할 것
무등도서관내 ‘아메리칸 코너’
젊은이들 많이 참여해 주길

주한 미국대사관 브렌트 바이어스(57) 공보참사관은 24일 “올해로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은 만큼 주한 미국대사관은 앞으로 광주 등 한국의 여러 도시 속에서 한미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수피아여고·호남대학교 특강차 광주를 방문한 바이어스 참사관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무등도서관 내에 운영중인 아메리칸 코너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시키고, 유학 등 미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 등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어스 참사관은 아메리칸 코너 운영에 대해 어려움도 토로했다. 많은 광주시민들이 아메리칸 코너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는 “옛 미 문화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무등도서관 내에 아메리칸 코너가 있는 사실 자체를 모른 사람도 많다”며 “아메리칸 코너의 프로그램이 옛 미 문화원의 프로그램과 똑같으며,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바이어스 참사관은 현재의 한반도 긴장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대화가 유일한 방법이며,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적 대립과 함께 한반도 긴장관계를 낮추고 서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대화의 시기와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북한의 핵 포기는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에 대한 애정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도 적극 표명했다.

그는 “광주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이고, 민주주의를 세계에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광주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



조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좀 더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80년 5·18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배신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는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배신감과 상처 등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함께 감정을 나누고 서로 생각하면서 상처가 치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5·18 재단 등 관계자를 많이 만나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어스 참사관은 앞으로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이지만, 한국과 미국 양국이 안보·군사 뿐 아니라 경제, 인적 교류 등에서 활발하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만큼 한·미 협력관계는 향후 60년도 밝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바이어스 참사관은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미 대사관 부대변인으로 일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은 한국통이며, 당시 세 살 난 한국인 딸을 입양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을 했다.

이번 교육은 신문을 읽고 배우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언론의식을 심어주고 개인별 잠재능력과 아이디어를 이끌어내 참신한 정책수립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NIE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신문을 읽고 배우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론과 민주, 시민의식 등을 깨닫게 하는 창조학습 방법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공무원교육원, 전국 첫 NIE교육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이 신문에 보도된 도정현안 등의 기사를 읽고 토론하는 분임토의교육(NIE·Newspaper In Education)을 전국 시·도 교육원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다.

24일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입교한 일반직 신규과정 79명을 8분임으로 나눠 최근 일간신문에 보도된 전남 도정 관련 기사를 주제로 분임토의 교육



광주U대회 수영장 건립 기공식

24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2015 광주 하계 U대회 수영장 건립 기공식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공사 시작을 알리는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F1 홍보대사 싸이, 다시 한번?

박지사 서한 보내… 싸이 ‘젠틀맨’ 수익금 5억 기부



는 가치와 다르지 않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박 지사는 서한에서 “지난해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싸이가 홍보대사를 맡아 현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과 대회 직후 공연이 큰 힘으로 작용했다”며 “앞으로도 F1과 전남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바라며 견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곡 ‘젠틀맨’이 전 세계 음악사에 변화의 바람과 새로운 트렌

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F1 대회와 전남도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박 지사는 서한은 지난 20일 기획사 매니저를 통해 전달했으며 지난해 대회에서 싸이의 홍보효과를 본 F1 조직위가 홍보대사 위촉 등 싸이 모시기의 하나로 보냈다는 후문이다.

싸이는 지난해 F1 홍보대사와 함께 결승전에서 체크플래기 역할을 했다. 대회가 열릴 즈음 ‘강남스타

일’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리면서 F1 드라이버들이 ‘말춤’을 주는 등 홍보효과를 뚜룩히 봤다.

한편 싸이는 국내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신곡 ‘젠틀맨’ 음원 예상 수익 5억원을 소아암 어린이 환자를 위해 기부한다고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24일 밝혔다. 싸이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 프로모션에 나선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 속도낸다

〈신안 도초도〉

문광부 ‘유망 관광개발 지원사업’ 선정

‘다도해의 동물원’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이 가시화된다.

전남도는 24일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이 문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13 유망 관광개발 투자유치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유망 관광개발 투자유치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올해 역점사업이며 신안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과 전북 태권도원, 부산 동부산 관광단지를 최종 선정했

다.

사파리 아일랜드는 전남도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이다. 신안도초도 발매리 일원 118만7000m²에 민자 814억 원 등 1324억원을 투입해 약 90여종 2000여 마리의 동물을 입식, 국내 최대 사파리 테마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12년 4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토지 매입 중으로 현재 25%를 매입 완료한 상태다.

애초 사업 추진 자체를 전남도가 할 예정이었으나 기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자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부지가 섬지역으로 뱃길로 2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등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하고 막대한 사파리 운영비, 생태계 훼손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전남도 이승옥 관광문화국장은 “앞으로 전남의 비교우위 지원인 해안과 섬을 친환경적 여가 휴양형으로 개발하고 특화해 국제적 관광휴양지 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역·송정역 서비스

전국 평균 이하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의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가 전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낙연(당대·합평·영광·장성) 의원이 24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광주·전남 19개역을 상대로 이용객 서비스 평가를 한 결과 ▲광주 송정역(95.70점)

▲광주역(95.12점) ▲전남 일로역(95.19점) ▲전남 구례구역(94.45점) 등 4개역이 전국 평균(96.22점)을 밟았다. 반면 전남 보성역과 옥곡역은 100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암동 전원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m²(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 90평~280평(분할·합병 가능)

현 토목공사 80% 진행 중

단지설명 자연 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 관리 연결공사 원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원료(각종 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 도로 접

찾아오는길

선운자구

영광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 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증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햇빛 재태크” 소용량(10~30kw) 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 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인증서 판매가격: 임찰을 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지부담 550
~680만원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설치비용은 1년치 5년상환제로 결제 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기금(cnn 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 300~4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그린파워

광주
총판
TEL. 1577-8905
019-624-2371
광주광역시 북구 신민동 149-3 1F